

서 울 대 사 람 들



S N U
M A G A Z I N E
V O L . 6 0



사회와 소통하는 힘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학교는 사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대적 과제 위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한발 앞서 고민해온 노력은 오늘날 서울대학교를 만든 힘입니다. 신실한 실천을 통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서울대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푸른 경계〉, 2019, 백자토, 유약연마, 김지수(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학부 졸업)

04 - 09

10 - 21

22 - 27

28 - 40

커버스토리

우리 곁의 영웅들
COVID-19에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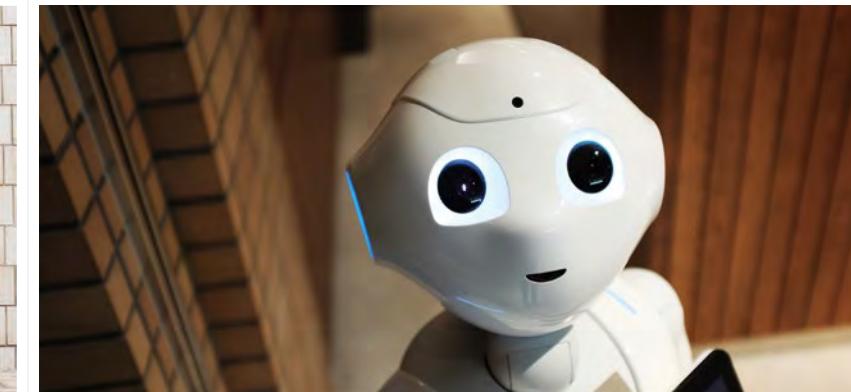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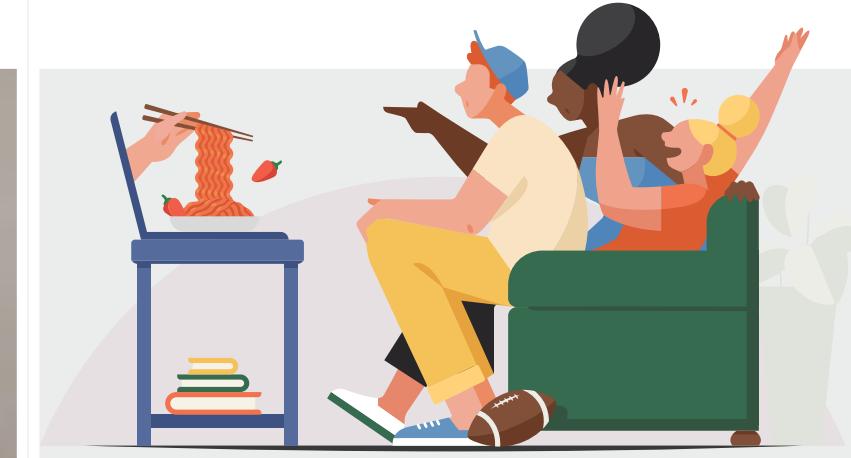
서울대 구성원의 이야기

김영민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소연·빈다은 동문 뉴닉 공동대표
2020 새내기 OT 멘토단
기획처 소통팀



학교의 이야기

AI 소식
연구 노트
SNU 단신



기부는 젊음이다
기부와 나
마음을 잊는 이야기
발전기금 뉴스



고립과 분리 대신 협력과 연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뉴스를 넘어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예술적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이든 노래든 뭐든지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좋아하는 걸 하세요.

우리 결의 영웅들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영웅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졸업식과 입학식을 열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을 되찾기 위해 서울대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범한 영웅들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관악 학생 생활관 코로나 19

자율 보호 시설 관리 교직원



격리된 학생들을 세심히 돌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다

기술사 시설의 문을 닫지 않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을 입주시켜 운영한다는 점은 많은 대학들이 참고하는 ‘서울대 방역’만의 놀라운 특징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관악학생생활관에서는 입주부터 운영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리 중국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3월 초 학기가 시작하기 최소 2주 전, 2월 중순까지 입국을 마치고 2주간의 격리기간을 둔 후에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게 했다. 개강이 연기된 후에는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했던 지역에서 상경해 입주하는 학생들에게도 격리 절차를 적용했다. 열이 나거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접촉자 등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에도 자율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자율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5명씩 팀을 짜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24시간 학생관리를 도맡았다. 10명의 교직원이 이 힘든 업무에 자원했다. 가족과의 만남이나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3주간의 고된 2교대 업무에 자청하여 투입된 것이다. 방호복과 마스크, 보호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학생 현황 파악과 관리, 퇴거 시 소독과 청소, 도시락 배달 등을 한다. 3주간의 지원 근무가 끝나면 다시 자택에서 2주간 자율보호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교직원들이 투입되어 업무를 이어간다.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바로 다음날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이 발생해서 정말 긴장됐어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우려가 현실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힘든 일일지만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거하고 감사 인사를 전할 때는 그만큼 보람도 느낀다. 휴일도 없는 나날이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 피로도 잊게 된다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이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별명 이전의 일상 한 조각을 누리고 있다.

이 선호 — 총무과

배기탁 — 관악 학생 생활관

전성기 — 중앙 도서관

윤연희 — 인사 교육과

서동철 — 인사 교육과

류영민 — 서울대 노동 조합

김정범 — 관악 학생 생활관

소인철 — 대외 협력 팀

이인영 — 관악 학생 생활관

이재복 — 인사 교육과

장다은 — 장학복지과

차분하고 명료한 언어로
전문가의 힘을 보여주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의학과 83

대대적인 검사, 혁신적인 진단기술, 성숙한 시민의식 등 감염증 확산 초기부터 한국이 세운 대응방식은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라 불리며 다른 국가의 방역 정책에도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한국 보건당국의 신종감염병 대응 최전선에는 방역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장으로서 노란 점퍼를 입고 차분하게 지침을 안내하는 정은경 본부장.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대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그의 업무 과정을 걱정할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이다.

정 본부장은 198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학과 전문의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거친 노련한 현장 베테랑이다. 2017년부터 최초의 여성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했듯이 신종감염병은 신속한 초동 대응이 안 될 경우, 언제든지 공중 보건위기상황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단순한 보건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이슈”가 되기도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근거 기반의 감염병 관리’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 상황을 알려 볼필요한 대중의 공포심을 불식시키

는 그의 언어에는 온화한 카리스마가 담겨있다. 밤낮없이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구로 콜센터에서의 집단 발병을 주제로 역학조사와 방역과정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K-방역의 사례를 재빠르게 세계와 공유해 각국이 방역 대책을 세울 때 참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날 열린 특별 브리핑에서 마지막 어린이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였다. 국민 모두의 의견을 정성껏 듣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말하는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내고 있다.

*인터뷰를 정중히 고사하여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총체적 가이드라인을 세우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감염병’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오명돈 교수는 의과대학 감염내과에서 에이즈와 신종 전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과 진행 방지를 위한 질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 메르스 유행 당시 확산 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올 2월 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것이 현실화됨에 따라 방역과 치료를 위한 새로운 단계의 국가적 대응이 필요했다. 오명돈 교수를 위원

장으로 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주요 임상의 경과와 중증도 평가, 진료 지침 개발, 퇴원 기준 마련 등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생산되는 과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에 치료 자문을 수행한다. 치밀한 방역으로 당장은 완화세를 보이지만 중앙임상위원회는 한 발짝 앞선 전망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가을과 겨울에 훨씬 큰 규모로 감염 확산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 미래에 부족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지금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점, 중앙감염병원을 설립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코로나19 임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 등이 위원회가 짚은 숙제다. 한발 앞선 위원회의 준비 덕분에 대한민국 방역 체계는 굳건하다. 그는 일전에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꼭 해내고 싶은 희망을 묻자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세상, 전염병을 앓는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사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들의 노력으로 2019년 우리를 찾아온 낯선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미래를 맞을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오길 기대한다.

*인터뷰를 정중히 고사하여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예진실과 비상대응팀을 운영하며 구성원의 든든한 안심이 되다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김지원 소장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았던 2월 초,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 전이었으나 학내에서는 교육부 총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위원회’가 조성되었다. 매주 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외국 유학생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절차를 논의하던 중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해외를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은 방역을 위해 셧다운(shutdown)을 선언했다. 기숙사와 도서관, 실험실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곳을 폐쇄하는 등 학교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기숙사생을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제한적으로 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사전에 우려 상황을 숙고하고 모든 구성원의 철저한 준비를 거쳐 이뤄낸 성과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위원회는 2월 4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대책회의를 열니다. 학생처, 교무처, 사무국, 국제협력본부, 관악학생생활관, 중앙도서관, 어린이보육지원센터, 보건대학원, 학생·대학원생 대표, 보건진료소 등 학내 기관 및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대책회의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더 세심한 기준으로 서울대 방역지침을 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의 보건진료소를 책임지고 있는 김지원 보건진료소장의 말이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이 나거나 의심 환자를 상담해주는 예진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온을 측정해 주고, 의심 환자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진료소로 이송한다. “3월 초까지는 하루에 50~1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최근에는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학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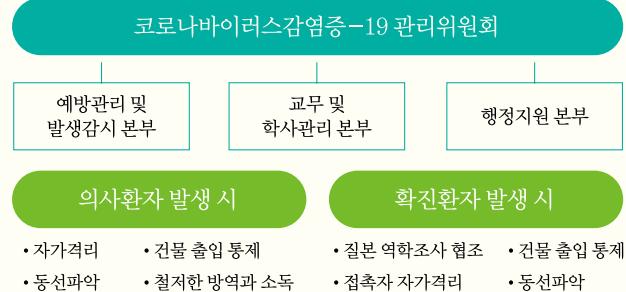
예진실이 문을 닫는 밤중에는 비상대응팀이 가동된다. 진료소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서 6시 이후 밤중에 열이 나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언제든 전화해서 상담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적확한 시기에 치침이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학교 방역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치침에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COVID-19에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한 2월부터 서울대학교는 대학 전체 차원에서 위기에 급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위원회>(위원장: 교육부총장)를 구성했다. 학생처, 교무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보건 진료소 및 주요 시설 담당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정보 공유를 통해 학내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개강 연기를 비롯한 학사 일정이 정해졌고, 강의 결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학내 감염자가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신속히 공지하고, 마이스누 앱이나 문자, 이메일로 코로나19 관련 주요 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교육부 등에서 접수한 여러 지침과 매뉴얼을 종합하여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감염 대비/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SNU 국가전략위원회

국가의 정책 이슈와 의제를 분석할 수 있는 공론장을 조성하고 서울대학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SNU 국가전략위원회'는 5월 20일(수)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와 WHO 및 시민사회的大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19-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후속 포럼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SNU 국가전략위원회는 국가정책포럼과 병행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 이슈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서울대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과 연구를 위한 데이터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과대학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과학적인 정보를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웹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와 역학자료, 코로나 환자의 임상증상, 중증도 등의 임상 정보를 전한다. 의과대학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단법,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연구 결과도 게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의료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알리는 영문 사이트도 구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의과대학은 의학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SNU 코로나연구네트워크

서울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코로나가 가져온 혼란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대 코로나연구네트워크(SNU Corona Research Network)>를 출범했다. 다양한 향방으로 드러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사회적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는 4월 10일(금) '코로나19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 5월 8일(금)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세미나를 운영했다. 이미경 KOICA 이사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재형 아시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김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등 참여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서 떠오른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남긴 과제를 논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19 통합 지식 허브 오픈

서울대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소식과 대응 매뉴얼 등을 모아볼 수 있는 통합 지식 허브가 5월 15일 오픈했다. 지식 허브 플랫폼은 코로나19 정복을 위한 서울대의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서울대의 제언을 담고 있다.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코로나19 지식 허브로서 앞으로 코로나19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성과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공유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소통을 위해 국·영문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관련 연구진 인터뷰와 대중강연 등 영상 콘텐츠도 게재되어 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인의 막연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www.snu.ac.kr/coronavirus



『논어』와 『춘향전』, 시대와 학제간 경계를 넘나들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정치학자는 ‘–란 무엇인가’라는 무거운 질문과 추석, 디저트 등 일상과 맞닿은 소재를 연결시키며 필력만으로 트위터 세대부터 종이 신문 세대까지 끌어당기는 칼럼을 쓴다. 13년째 서울대 강단에 서는 김영민 교수가 말하는 매력적인 글쓰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대학, 말하고 쓰는 법을 배우는 시간

김
영
민

- 초유의 온라인 개학 시대를 맞아 조용한 봄날의 캠퍼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평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왔기 때문에 일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페이스북에 그림 한 장 올리고, 자기 전에 음악 링크 하나 올립니다. 그사이에 할 일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몽상에 잠기고, 디저트를 먹고, 대소변을 봅니다.

- 동영상 강의 준비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학기가 시작하고 꽤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은 강의실에서 공간적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 배치에 따라 제 동선도 결정됩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강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는 제게 큰 도전입니다. 물론 역시 상대의 바디 랭귀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강의를 촬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하나의 영화를 찍는 듯한 구성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 평소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변화를 중시합니다. 수업을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짧기에,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달 전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한 낮선 졸업생이 제 책을 읽고 이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 학교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강의” 가 드물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강의를 퇴임 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졸업생들까지 포함해 답사를 떠나거나, 결혼 축사를 해주시는 등 학생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두루 유대감을 맺을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단절된 학생도 있고요. 졸업한 후에도 자신의 투명 생활을 전해오는 졸업생도 있는 것을 보면, 유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의 비결은 모르겠으나, 학생들 비위를 맞춘다고 유대감이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수업 외 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공부 모임과 답사 모임이 학생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학생들과 함께,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네요. 누군가 아무런 간섭과 제약을 가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양질의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 수업에서 글쓰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학생에 한해 기말 리포트를 꼼꼼하게 첨삭하고, 글을 고쳐 써오도록 하는 정도 방식을 창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첨삭지도는 저 이외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겠지요. 다만 그분들이 다수가 아니다 보니, 질문에 “창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글쓰기란, 대부분의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 환경에서는 각오와 희생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업 성격상 글쓰기가 필요한데 그 수업에서 글쓰기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라면 그런 수업을 피하겠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 부임 다음 해인 2007년부터 블로그처럼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조회수가 천 단위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나요?

십수 년 전에 학교에서 교수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라고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과에서 제가 가장 젊은 교수

였기 때문에, 나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덧글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홈페이지라서 방문객이 누구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잉여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까요?

- ‘칼럼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도 있으시죠. 교수님의 글에 ‘입덕’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글쓰기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간혹 글을 잘 읽었다고 정성스러운 이메일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제 글을 즐겨 읽는 분들이 어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느 글과 다른 점이 있어서 즐겨 읽는다고 추측해봅니다. 현재 한국어로 통용되는 글 다수에 “깊은 빠침”이 있고, 그 분노가 다른 글을 쓰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연구 논문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와 칼럼 등 말과 글을 통해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전공을 감안하면 사회와의 소통 역시 충분히 할만한, 심지어 당연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러나 40대에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소통에 중독되어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정치사상의 여러 테마를 다루는 글들, 만화비평, 제가 경험한 좋은 글의 소개, 전시 기획 등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사상사는 다학제적 학문이며, 그 해석 대상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텍스트로 소통은 활발하게 하시지만 이미지로 매스컴이나 대중 앞에 노출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알아보는 일이 과연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TV 출연 요청과 광고모델 제의를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TV 출연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생각을 나누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TV 출연을 자제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신문 기고와 달리 TV 출연은 시간 소모가 많아, 저같이 게으른 사람의 경우 자칫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지도 모릅니다. 둘째, 라디오와 달리 TV 출연은 담당 PD에게 훨씬 큰 편집권이 있어서 제 발언에 자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소된다면, TV 같은 매스컴에 출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말 논어 에세이를 출간하시고 10년 동안 새로운 논어 번역서와 해설서 출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동아시아 정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갖고 계신 비전이 궁금합니다.

논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전 읽기에 관한 기존의 관행을 일신하고, 좀 더 풍부한 레퍼런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는 천 페이지가 넘는 〈중국정치사상사〉를 출간할 계획인데, 중국 정치사상에 관한 기존 내러티브를 일신하고,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한국정치사상사〉 저술이 있는데, 상당한 건강, 노력, 지원,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나름 흥미롭게 여기는 계획이 있으나 비밀입니다.

- 앞으로 어떤 정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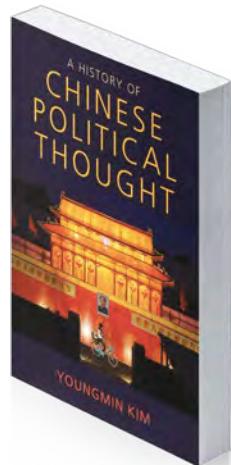
우선, 부끄럽지 않은 직장에서 정년을 맞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직장이 너무 부끄러운 곳이 되면, 많은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버리겠지요. 근년에 서울대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진적 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료적인 시각을 가지고 개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가 논문을 얼마나 양산하는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지 등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서울대가 매사에 좀 더 적적으로 활성화된 곳이기를 바랍니다. 교육제도 개편이든 총장제도 개선이든 매사에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지적인 토론이 일어나고, 그

에 어울리는 양질의 텍스트가 유통되기를 바랍니다. 행사 를 위한 행사,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는 그만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업윤리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정년을 맞을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심사를 맡은 논문은 늘 꼼꼼히 읽는 교수, 맡은 수업에 변함없이 충실했던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불성실한 수업을 하며, 합당한 자격이나 성취가 없는데도 수상 경력을 쌓아나가는 교수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 교수님의 졸업식 축사 모음집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졸업 후에 서울대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길 바라는지 다시 한번 당부하신다면.

음... “서울대인”이라니, 닭살이 돋아 날아갈 것 같은 표현이군요... 한국의 대학이 예식을 자주 치르기는 하지만 제대로 치르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학과장을 맡아 정말 졸업생들에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를 졸업식에 담고 싶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그 졸업식들을 다시 읽어보고 기운을 얻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뻤습니다. 학교 혹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넣고 캔커피를 뽑아 마시는 것과 다릅니다.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참여의 뜻을 늘 상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정크 메일로 가득한 메일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창 시절이나 졸업한 이후에나 좋은 배움의 기회를 목마른 사람처럼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사기꾼들을 조심하면서.

대
표
저
서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2017)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2018)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2019)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궁금한데 신문 볼 시간이 없어서, 뉴스는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친구가 말을 건네듯 가볍게 정치 경제 등 시사 이슈를 풀어내는 이메일 뉴스레터는 2018년 겨울 론칭 후 현재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한 구독자 18만 명을 모았다. 알아야 하는 이슈를 알고 싶게 담아내는 밀레니얼 미디어 플랫폼 '뉴닉'을 만든 이들을 만났다.

귀여운 '고슴이'가 전하는 똑똑한 뉴스

newneek.co

뉴
닉
공
동
대
표

- 최근 포브스가 발표한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파티는 하셨나요?

김소연 파티는 못 했는데, 선정된 당일에 팀원들과 워크숍 중이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광인 일이었음에도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선정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 두 분은 서울대학교 경영학회에서 만나셨다고요. 당시에 어떤 생각과 가치가 맞아서 친해지셨나요?

김소연 일단 저희가 만났던 학회 자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덕분에 공통의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두 명 다 익숙했던 거 같고요. 특히나 다른 남은 좋은 통찰력과 설득

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릇이 큰 친구여서, 제가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도 믿고 들어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친구였고요.

Binda-eun 둘 다 기성의 원칙에 이유를 따져 묻는 걸 좋아했어요. 새로운 길일지라도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함께 많이 했고요.

- 어떤 경험과 생각이 두 분을 뉴닉 창업으로 이끌었나요? 또 공동으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중요하게 나누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소연 지금도 하는 얘긴데요. '재미있게 하자'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창업을 하는 일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나 압박감을 갖는다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창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때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에 가치를 줄 수 있는 도전은 지금 말고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을 하다보니 동료들이 생겼고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일을 지속할 이유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변하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하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창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빈다은 글쎄요. 하나를 꼽기는 어려운데요. 하루에도 아주 잘 될 것 같았다가 아주 안 될 것 같았다가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에요. 걱정도 많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많고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없었던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을 조금씩 완성해간다는 기쁨이나, 이런 우리의 꿈을 믿고 따라 와주시는 팀원분들 얼굴을 보면 벅찬 직업이죠.

- 2018년 12월 론칭해 이제 2년 차 회사가 됐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빈다은 아무래도 구독자 수죠. 이메일이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틀로, 밀레니얼 세대에게, 연성뉴스가 아닌 충분히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했고, 광고 없이 18만 명이 임소문을 타고 모여 보고 있다는 것이 뿐만 해요.

- 뉴닉이 뉴스레터를 전하는 소통 방식이 독특합니다. 친근하고 재밌는 말투의 캐릭터 고슴이가 이메일로 뉴스를 전하는 방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소연 뉴스란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깨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메일로 뉴스를 전달하기로 했겠다, 뉴스를 보내는 화자를 좀 더 귀엽고 친근하게 설정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신문의 엄격한 절단면을 닮은 고슴도치, 고슴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독자들이 저희를 부를 때에 “뉴닉 팀”이 아니라 “고슴이”라고 브랜드를 의인화

해서 불러주시는데, 그럴 때에 의도한 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뿐입니다.

- ‘밀레니얼에 의한, 밀레니얼을 위한 소통 뉴스레터’로서 뉴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궁금해요. 특히 밀레니얼의 어떤 특징에 주목하고 있나요?

김소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성을 감안하고 들어주신다면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닉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가장 큰 동력은 밀레니얼 구독자들의 솔직한 피드백에 있었어요. 바라는 점을 솔직히 말하고, 뉴닉이 반응을 보이면 그에 대해 또 솔직하게 평가해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솔직한 대화를 아무하고 나 시작하지는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대응할 줄 아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슴이를 매개로 좋은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것이 괜찮은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 뉴닉은 타깃으로 정한 2030을 넘어 40대에게도 사랑받고 있다고요. 송가인만 이뤄낼 수 있다는 세대 통합. 뉴닉도 그 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소연: 저는 뉴닉이 지향하는 쉽고 간결한 글쓰기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필요로 했던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슴이에게 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귀여운 건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 매일마다 피드백을 수집하고, 독자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나요?

김소연 모든 피드백이 정말 감사합니다. 인상적이었던 반응도 여러 개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반가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뉴스에 장벽을 느끼면서 이런 것도 모르다니 하면서 자책을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뉴스 이야기를 하면 당당하게 한 마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 뉴닉의 조직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구성원이 닉네임을 부르며 소통하도록 정한 이유와 이런 소통 방식이 실제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빈다은 솔직하지만 사려 깊은 문화요. 한국에서 아직 전전한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닉네임이 분명 직급이나, 나이에 따른 호칭보다 분명 솔직하게 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겠죠?

- 그린피스와 ‘지구가 좋아하는 뉴스’라는 콘텐츠를 만드셨죠. 기업 광고면서 뉴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을까요?

빈다은 뉴닉은 힙하고 워트 있으면서도 감수성을 잃지 않아요. 뉴닉과 앞으로 함께하는 브랜드를 고를 때도 이러한 특징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통 튀고 자신만의 개성이 있지만, 인권이나 환경 감수성이 있는 곳일수록 빛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 목표하는 구독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김소연 연말까지 50만 구독자 가고 싶습니다! 뉴닉의 미션은 “밀레니얼 세대를 세상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우리 세대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갈수록 기쁜 일이라서, 목표인 50만 명을 넘으면 훨씬 기분 좋겠죠 :)

- 앞으로 뉴닉은 어떤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비전을 들려주세요.

김소연 뉴닉은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쉽고 재밌게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블뉴스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우리가 블자식 정보 콘텐츠가 없다는 것으로 확장하여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뉴스 콘텐츠를 한 가지만 만들어서 일방향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에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고, 사용자도 다시 콘텐츠 생산자로 기여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을 종종 느끼실 때가 있나요? 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와 앞으로 서울대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김소연 일단 사업 파트너를 만난 곳이니 학교에 감사한 마음이 크지요(웃음). 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역설적으로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서울대인이 자신의 전공을 가장 살리는 방향으로 수학을 하기도, 동아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생의 든든한 힘이 될 추억과 인연을 쌓기도, 또 저처럼 학교 바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정해진 답은 없으며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바와 같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기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좋은 선례로 남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룰모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한 걸음씩 나아가보겠습니다.



새내기에게 전하는 따듯한 인사

2
0
2
0

세심한 소통, 따듯한 환대를 이루다

2020년 3월, 신입생 입학식이 연기되고 수업마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초유의 학기. 2월 초 진행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은 20학번 신입생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던 유일한 공식 행사가 됐다.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소개부터 팀빌딩 프로그램, 캠퍼스 투어까지 종일 이루어지며, 총 3회 일정으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본부 학생 지원과, 멘토단이 주축이 되어 5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다. 올해 멘토단은 어떤 마음으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을까. “대학 생활하면서 인프라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새내기 OT는 학교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다른 학과 친구를 알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잖아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직접 쟁겨준다는 느낌을 받는 건 이때뿐이에요. 그래서 이번 새내기 OT에 참석하는 새내기들은 따듯한 환대와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멘토단은 먼저 새내기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학생 멘토들에게 전달했다. 행사가 열리는 문화관 대강당으로 오는 길부터 프로그램이 끝나고 뒤풀이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새내기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또 멘토단은 한겨울에 드넓은 캠퍼스를 걸어야 하는 새내기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꼭대기부터 정문까지 왕복 운행되는 버스를 배치해 처음 학교에 발 딛는 새내기들이 더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다

새내기 OT 멘토단은 3회에 걸친 오리엔테이션 사이에 익명의 피드백을 진행하며 새내기 OT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썼다. 1차 오리엔테이션의 피드백을 2차에 적용하며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기에 마지막 행사에 더욱 기대가 모였다. 그런데 3차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이 국내로 확산됐다. 당시 국내 확진자는 10명 남짓으로 많지 않았지만, 2천여 명의 새내기가 참여하는 행사를 총괄하는 멘토단에게는 책임감 있는 결단이 필요했다. “오래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아쉬움이 정말 커어요. 평소 성격이라면 강행했겠지만, 서울대 새내기 OT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죠. 3차 새내기 OT를 기다렸던 900명의 새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물 900개를 모두 포장해 발송했어요.” 게다가 이번 새내기 OT에서는 행사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매년 인기 있던 풍선 날리기 행사가 폐지됐다. 멘토단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풍선 날리기 행사를 과감하게 없애고, 컬러 폭죽으로 대체 행사를 마련한 것. 매년 한 아름 풍선을 들고 예쁜 사진을 남겼던 멘토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서울대학교 새내기 OT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도 긍정적인 일이었다. 새내기 OT의 준비부터 시작, 그 끝까지 새내기를 향한 선배들의 넘치는 애정과 따듯한 환대의 마음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집에서 아쉬움을 달랠 20학번 신입생 모두에게 은은한 위로와 감동으로 닿을 것이다.





문기훈
박수정
이호연
박소영
이장현

공감으로 활짝 열린 소통의 문

기획처 소통팀

감동이 있는 소통을 고민합니다

이번 봄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드론으로 촬영한 캠퍼스 영상이 프론트 페이지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학교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연구 성과나 교육 등 학교의 핵심 기능이 먼저 보이게 메뉴 배치도 바꿨고요.” 변화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영상을 보니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 눈물이 난다는 이도 있었다. 수용자 중심으로 레이아웃부터 문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결정하는 것. 이는 최근 개설 3개월 만에 팔로워 1만 명을 돌파한 SNS 계정의 인기와도 맞닿아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서울대만의 정서를 담아내죠.” 서울대를 졸업한 소통팀 직원이 담당하고 학생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도 활용한다. 친한 고학번 선배가 학생과 예비 신입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답하는 셈이다.

학교 정책과 캠페인은 보기 쉬운 카드뉴스로, 단과대 및 기관 소식은 뉴스룸 SNU NOW에서, SNS는 학교 정서를 담아 소통하며, 매거진은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서울대인을 발굴해서 제작한다. 소통팀은 매체마다 전략적으로, 그러나 진솔하게 커뮤니케이션한다. “크고 작은 학교의 소식들을 편하게 소통팀에 제보해주세요. 더 많은 서울대학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서울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사람들이라는 소통팀.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학교 곳곳을 연결하고 자랑스러운 소식을 친근하게 알린다. 더 많은 이들이 서울대학교를 사랑하길 바라며.

커다란 캠퍼스 사이사이를 메꾸는 소통 윤활유

“예전에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적었죠. 이제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외에 여러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학교의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올 4월 서울대학교 소통팀이 신설되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간 정서적 공감대를 쌓고, 예비 신입생부터 동문까지 다양한 이들과 소통하며 학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다. “교육에 열정적이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직원, 우수한 학생. 한 명 한 명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서울대에 모여 있어요. 하지만 다들 각자 알아서 잘하니, 굳이 서로 그런 걸 알려야 할까? 생각하곤 했죠.”

‘입학했을 때 말고 서울대학교라는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우리 부서 말고 다른 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커다란 캠퍼스의 면적만큼 구성원도 많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적다 보니 ‘서울대학교’라는 공동체 의식도 희미했다. ‘스누새 편지’는 그렇게 학내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 일환이다. 교조 백학이가 물고 온 작은 아기 새, 캐릭터 ‘스누새’가 학교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울대 사람들의 이야기나 캠퍼스에 얹힌 추억 등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취재해 들려준다. “스누새 앞으로 답장도 100통 이상 빙았어요. 학교에서 오는 메일 중 가장 기다려진대요. 스누새가 ‘소통의 아이콘’이 돼서 서울대만의 따뜻함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공지능 연구

국가 미래 발전 전략을 선도할 과제로 AI(인공지능) 연구를 설정하고 교육,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과학기술과 공학 분야뿐 아니라 인문학과 음악,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인 AI 융복합 연구를 소개한다.

국어국문학 + AI



한글 고문서의 집필 연도를
알아맞히는 AI 연구자

음악 + AI



곡의 의미를 해석해
감성을 담아내는 AI 피아니스트

'셀프 출판' 강국이었던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책을 출간하거나 두고두고 보고 싶은 문헌의 필사본을 제작해 보유하는 일이 많았다. '훈민정음해례본' 같은 국보급 문서가 왕실 도서관에서 사라졌다가 일개 가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런 문화를 반영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요즘에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훈민정음 고문헌이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출간 연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수백 년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달라져 온 한글 문자의 빅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는 것이다. 한글 문자 변천사 데이터 딥러닝을 마친 AI에게 주어진 문헌의 출간 연도를 물으면 AI는 자료를 비교하여 불과 10년 이내의 오차범위로 연도를 추정해 낸다. 박 교수는 AI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AI 집담회를 통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AI를 이용해 국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갈 뜻을 밝혔다.



Finance / Marketing + AI

Humanities / Arts + AI

Pharma + AI

X+AI

Bio + AI

Brain + AI

Medicine + AI

의학 + AI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전송하는 AI 의료진

병원에 가면 기본 검사를 위해 몸에 이런저런 기기를 부착하고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게 된다. 의사들은 각각의 기계가 알려주는 수치를 보고 해당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해 진단과 치료를 수행한다. 이때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의료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AI가 의사를 돋는다면 어떨까? 기초적인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받고, 의사는 더 중요한 임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마취통증의학과 이형철·정철우 교수팀은 환자의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바이탈 DB(VitalDB)'를 만들어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사물인터넷 장비인 '바이탈 리코더'가 기록해 바이탈 DB 서버로 전송하면 분석된 결과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나타난다. 2016년에 구축한 바이탈 DB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체신호 DB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500여 명의 의료진이 사용하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시대의 대중문화 연구

— BTS 이후 한류연구의 새로운 지형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는 대중문화 연구자이다. 그중에서도 세계화와 디지털문화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초국적인 문화영향력의 흐름과 새로운 문화형식, 그것의 소비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힘에 대해 연구한다.



대중문화 연구란 무엇일까? 언론정보학과 문화연구랩은 그중에서도 세계화와 디지털문화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초국적인 문화영향력의 흐름과 새로운 문화형식, 그것의 소비과정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힘에 대해 연구한다. 한류는 이러한 연구 영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로서 지난 7년간 문화연구랩의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2013년에 출판된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시대의 한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현상이 시작되어 동아시아 각국의 한류 드라마 수용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미 인터넷 팬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드라마가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으로 소비되며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밝힌 연구이다.

이 책에서 제기된 한류 현상에 연관된 인종과 젠더 등 사회학적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흥미로운 대중문화 현상을 생산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BTS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연구 문제들을 케이팝과 BTS에 심층 적용할 수 있었다. 세계의 변방에서

탄생해서 전 지구적인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한 BTS는 케이팝의 혼종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극대화하고 있다. BTS는 첨예한 경쟁 속으로 내던져진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속 청년 세대의 고민을 대변하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디지털 문화로 무장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거대한 전 지역적 팬덤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구는 BTS가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젠더적으로 해방적인 참조 대상이고 인종적으로 동아시아인을 역능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연구랩의 또 다른 연구 대상은 한류현상과 한국의 디지털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문화형식들이다. 아프리카 TV의 '먹방'과 한국 텔레비전 속 음식프로그램들은 어떤 다이내믹스 속에서 현재의 재현체계를 형성했고 왜 이토록 확장되는가? 한국 텔레비전을 여전히 핵심적인 대중문화의 장소로 유지시켜주는 예능프로그램의 특정 형식들은 어떤 사회적 역동성 속에 있

고, 이 포맷이 수출되어 외국에서 가공될 때 어떤 요인들이 개입하는가? 한국인 없는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에서 'K'의 내용은 무엇일까? 남성 뷰티 유튜버는 기존의 이성애 가부장적 남성성을 변화시키는가? K-뷰티의 핵심인 미백 장치는 무엇으로 구성되었고 어떤 권력 효과를 생산하는가?

문화연구랩의 또 다른 관심사는 어떻게 디지털 흔적을 사용자의 문화실천이 드러난 문화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비쥬얼라이제션(Visualization)과 같은 데이터 과학의 도구를 문화연구에 활용할 것인지와 같은 방법론적인 것이다. 이런 관심사 속에서 문화연구에서 활용되던 전통적인 질적방법론에 영상방법론을 새로 도입해 여러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의 정체성이 어떤 풍경의 형성을 통해 경험되는지에 대한 영상방법론적 연구, 재난 시 트위터

영상공유의 내러티브 구조를 분석한 바 있고, 특히 지난 20년 간 출판된 한국어와 영어 한류연구 논문에 대한 지식연결망 분석은 한류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학술적, 비학술적 요인들과 한류연구 장의 행위자 분석 작업을 보여주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과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 속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한류연구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영어권 대학의 한국 대중문화 외국 연구자가 한류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류연구의 세계적 저변이 확대되면서 한류연구의 수월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석경 교수(사회과학대 언론정보학과)

“문화연구랩은 한류현상과
한국의 디지털 문화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문화형식을 흥미롭게 바라본다.”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SNU 10-10 프로젝트' 가동

<SNU 10-10 프로젝트>는 '10개 학문분야의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우수한 연구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학문분야를 선정해 최대 6년간 지원, 육성하는 대학의 핵심 중점사업 중 하나다. 우수한 학문분야 7개와 잠재력을 지닌 학문분야 8개가 선정되어 총 15개 학문분야가 참여한다. 언어학, 행정학, 지구환경과학, 화생물공학, 재료공학, 의과학(융합분야의학), 치의학이 우수한 학문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잠재력을 지닌 학문분야에는 사회복지학·사회학, 정치외교학, 응용물리학(첨단응용물리 연구분야), 뇌인지과학,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종양학(암 이행성 연구분야)이 선정되었다.

지난 2019년 11월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사업공고 후 총 38개의 학과(부), 연구소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사 끝에 4월 13일(월), 최종 학문분야를 선정하였다. 사업심사는 본교의 미래를 담보할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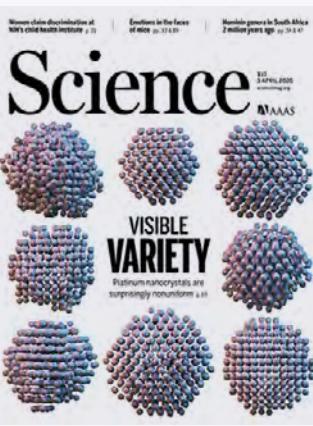
문분야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 국내외 석학에 의한 국제적 차원의 심사를 위해 모든 제안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검토과정 또한 영문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벨상 수상자, 필즈상 수상자 및 해외 유수대학 총·학장 등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경험과 연륜을 갖춘 세계적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층 서면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전·현직 총장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토론심사를 거쳐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학문분야를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와 제안자가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다. 1차적으로 이뤄진 서면심사 평을 가감 없이 제안자에게 공개하고 해명 기회를 주는 한편, 최종 선정 시 사전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선정위원과 제안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세계적 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동일한 절차로 3개의 우수 학문분야를 추가선발 할 예정이다.

나노입자의 '3D 증명사진'을 찍다

화생물공학부 교수이자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연구위원인 박정원 교수 연구팀이 호주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그 리국립연구소와 함께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1.037) 4월 3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서울대 김병호 연구원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통해 실제 3차원 원자배열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보다 1/6 작은 수준인 0.02nm의 정확도로 나노입자를 관찰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나노입자가 녹아 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Cell)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관찰하며 초당 40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 이어 연구진은 개별 나노입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촬영된 수천 장의 이미지를 3차

원으로 재구성하는 자체 개발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정밀한 입체구조를 얻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촉매의 성능 개선,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이고 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합성하는 것이 미래 소재 개발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촉매, 디스플레이, 신약 개발 등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노재료의 설계 및 합성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첫 코로나19 정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다

Secrets of the novel coronavirus unearthed: SNU Professors Kim and Chang collaboratively revealed the architecture of the SARS-CoV-2 transcriptome

Two professors of SNU have deciphered COVID-19's highly complex transcriptome and epitranscriptome using two complementary sequencing techniques, thereby paving the yet untraveled road to understanding the life cycle and pathogenicity of the coronavirus.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RNA 연구단 김빛내리 단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장혜식 연구위원(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연구팀은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나노포어 직접 RNA 시퀀싱, 나노볼 DNA 시퀀싱)을 활용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속주세포 내에서 생산되는 RNA전사체를 모두 분석했다. 이 분석에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한편, 기존 분석법

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RNA들을 찾고, 바이러스의 RNA에 화학적 변형(최소 41곳)이 일어남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전사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고,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유전체상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유전자의 복잡하면서도 숨겨진 비밀들을 풀 수 있는 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유전체와 전사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김빛내리 단장은 이번 연구가 "바이러스의 증식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학생과 교수들이 힘을 모으다

의료진과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대학가에서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재학생을 필두로 모금 운동이 일어났다. 3월 3일부터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대인 모금'(snudonation.org)은 재학생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하루 만에 기부자 400여 명, 기부액 1,400만 원을 돌파했다. 총 1,050명이 누적 42,072,800 원을 모아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 병원 여러 곳에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방호복과 진료용 장갑, 손세정제 등을 전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들도 장학금 모금 운동을 벌였다. 여러 교수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교수협의회가 주도하여 466명의 교수가 2주간 모금에 참여했다. 총 모금한 금액은 1억27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재학생(학부, 대학원생)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장학금>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으로 지난 5월 지급됐다.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교수와 제자 서로가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부는 젊음이다



“매월 만 명의 만 원이 선한 인재를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 소액기부, 정기기부 문화를 확산해 온 만만한 기부가 4주년을 맞았다. 2020년, SNS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만만한 기부’를 살펴본다.

밀레니얼 세대, 기부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집단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주목받으면서 동시에 ‘기부’의 중심축 역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선 단체인 Fidelity charitable에서 발간한 <자선의 미래(The Future of Philanthropy – where individual giving is going)> 리포트에 따르면 오늘날의 기부자에게 ‘기부’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특히 성과를 중요시하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 종교기관, 기업, 사회적 기업 등 특정 주체가 개별 영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합니다. 3,254명 설문조사, 2016

요즘엔 더욱이 #기부 #기부캠페인 등 해시태그를 달고 SNS 채널에 기부 사실을 공유하는 모습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왔던 기존의 기부 사례와 다르게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고 주위에 알립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개인 SNS를 통해 주위에 알리는 행동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사회로 확산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대학내일 2020 트렌드』는 ‘선취력’이라는 키워드로 “작고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참여로, 먼저 행동해서 사회에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밀레니얼-Z세대의 특징을 짚기도 했습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손쉽게 누구나 ‘만만한 기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서울대학교의 ‘만만한 기부’에는 동문, 학부모, 교수, 직원, 법인 및 단체, 재학생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만한 기부는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0~1구간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

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취지에 공감한 재학생들도 장학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기부자가 되어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하며 기부했던 젊은 기부자는 당시 재학생이 기부한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알았을 때 다들 깜짝 놀라거나 농담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학생이 무슨 기부냐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학기 내내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에 장학금이 저와 같은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더 의미 있게 잘 쓰이길 바랍니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SNS 채널을 활성화하고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금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 2017년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단을 알리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성실한 학생이자 믿음직한 후원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덕분에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발전기금도, 기부하시는 분들도 정말 멋있습니다. 졸업 후엔 저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등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요.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과 협동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giving2snu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nufoundation/

“내가 베푼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길 것”

최원갑 동문 (전 최신물산 회장, 섬유공학 55입)

섬유산업에 일생을 걸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훌쩍 큰 키, 눈처럼 하얀 백발에 검은 눈썹이 성성한 노신사가 휙휙휙적 사무실 안을 걸어 들어왔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가득히 띠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 섬유 수출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업가. 1975년 창업 후 43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매출액 1,627억 원 규모의 편조의복(니트) 제조 및 무역 업체인 ‘최신물산’을 운영했다. 수출 중심의 B2B 사업 특성상 국민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1997년 은탑훈장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최신물산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당시에 섬유공학은 입학만 해도 기업들이 모셔 가려고 다투는 곳이어서 취업 걱정은 안 했어요. 십수 년 회사를 다니다가 학창 시절 클래스메이트들과 공동으로 출자금을 내서 함께 창업했습니다. 물론 동업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위낙 친구들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공과대학을 나왔기에 옷 제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알았다. 덕분에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생산 공장 없이도 제조공정의 품질을 끌어올리도록 지도할 수 있었고, 첫해에 백만 불 매출을 달성했다. 품질이 높고 신의가 좋다, 소문이 나니 세일즈 없이도 해외 바이어들이 앞다투어 사무실을 찾아와 주문을 넣었다.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수출 액의 25%를 섬유가 차지했죠. 정부에서 수출 주도산업을 진흥하던 시대에 섬유는 주요 수출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섬유 수출 업체에서는 리더 노릇을 했어요.”

45년의 사업가, 신문을 보고 기부를 결심하다

탁월한 퀄리티의 다품종 고급 니트를 미국 백화점에 납품하는 주요 벤더로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이름을 내걸기도 하고,

과감하게 섬유 기업 최초로 중남미에 생산 공장을 짓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오가며 일 년에 4개월은 해외에서 보냈던 모험가의 머리에는 이제 하얀 눈발이 내렸다. 아들딸, 며느리, 손자까지 19명의 가족들과 함께 스키 타러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다정한 할아버지는 2018년 기업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다. “2년 전에 회사를 매각했어요.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산업이기에 점점 힘들더라고요. 동업자들도 함께 은퇴했고요.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직장 생활 이후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사회적 과제죠. 한창 바쁘게 지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시간이 많아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강좌를 듣기도 했고, 책을 많이 읽어요.”

돌아보니 바빴던 시절, 모교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를 마음먹고 있던 찰나, 동창회 신문을 보다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학교가 법인으로 독립했으니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세계적으로 학교의 이름을 날려 발전하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된 건 없을 겁니다.” 연구기금 1억 원, 기부 약정부터 출연까지 3일이 걸렸다. 몸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사무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며 장학 기금에 쓰일 ‘만만한 기부’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선택과 실행 사이 남다른 추진력은 온화해 보이는 그가 지금껏 어떤 태도로 기업을 일구고, 살아왔는지 보여준다. 정성들여 질문을 듣고 곱곰이 생각해 명료한 답을 내는, 말수가 적은 그에게 장학금을 받을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게임이든 노래든 제일 자신 있고 좋아하는 걸 하세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찬찬히 올라가는 게 인생을 제일 잘 개척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잠시 머무른 자리에 피어나는 마음꽃 같아

민들레 홀씨가 날아다니며 꽃씨를 흘뿌립니다. 잠시 머무른 자리에 이내 쑥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장학금이 잠시 머문 자리에도 감사와 사랑, 행복의 마음꽃이 피어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다워 코끝을 간질이는 꽃 내음을 맡아봅니다.



따듯한

새끼손가락 걸고서



어린 시절 어머니께 피아노를 배우며 피아노 전공을 꿈꿨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방황했습니다. 윤리 교사셨던 아버지는 서울대에 진학한 제자에게 제 멘토링을 부탁했고, 그 계기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과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과외, 잠, 생활비를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해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첫 장학금은 날개가 되어 성적은 급상승했고, 목표했던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문득,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걸으며 세상 두려운 것 없던 어릴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치느라 많이 힘들제? 고생이 많다.”

글. 오영호 법학전문대학원

피아노를 가르쳐주던 어머니의 새끼손가락, 제자에게 아들을 부탁하던 아버지의 새끼손가락. 얼굴은 빤적 없지만 서울대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된 16대 이현재 총장님과 동곡 이용희 선생님의 새끼손가락, 서울법대 장학재단 선배님들의 새끼손가락, 등 너무 많고 따스한 새끼손가락을 잡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대 행정실에서 장학금 기부 서약을 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과 서울법대 장학재단의 장학금, 생활비 대출에 의지하고 있어 시작하지 못했지만, 졸업 후에는 지금까지 받은 마음과 정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새끼손가락을 걷고 지금까지 힘차게 걸어왔듯, 저도 누군가에게 잡고 함께 걸으면 세상 든든하고 따뜻한 새끼손가락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군 복무를 마치고 관악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근 2년 동안 중단했던 학업에 대한 부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면 과외나 아르바이트 병행은 무리라고 판단했고, 학업에 집중하여 복학 후 첫 학기 평균 학점 4.3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양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다음 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는 시구가 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 노력으로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故 정석규 선생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며 받은 도움을 환원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학금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을 만들어 준 여러 사람 덕분이며, 여기에는 제가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요. ‘조국의 미래’라는 거대한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을 받게 된 이유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나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의 의미를 넘어 인생에 대한 관점을 크게 바꿔주었습니다.

글. 임택상 정치외교학부



장학금 액수보다

큰 의미

대학 학과를 확인하고 기쁨에 부풀었던 16학번 새내기 생활은 행복한 기억보다 좌절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생각 없이 친구들과 놀면서 통장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과외, 학원 아르바이트로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바라니 자연스럽게 학업과 멀어졌고, 처음 받는 낫은 성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7년 2월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치듯 입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복학하던 2019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근로장학생 일은 저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로 마련된 작은 책상과 스탠드 하나에 의지해 학업에 열중했고, 또 근로장학생으로 학부의 여러 행사들을 참여하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근로장학금이 얼마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학생 1년의 경험으로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대학교에 다니며 혼들렸던 저를 꽉 잡아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장학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장학금입니다.

글. 신상엽 자유전공학부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故 김윤식 명예교수, 가정혜 여사 부부



우리나라 대표 문학평론가이자 국문학자인 故 김윤식(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동문의 배우자 가정혜 여사가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국어 교육 연구소에 쾌척했다. 가정혜 여사는 “서로 위하고 아껴주며 평생을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이라 소중하게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남편도 본인이 평생을 몸담고 헌신했던 서울대에 기부한 것을 보고 좋아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영수 명예교수



1987년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한 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골유착성 임플란트 시술을 도입한 김영수 명예교수가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김영수 명예교수는 “서울대에서 배우고 오랜 기간 몸담았던 스승으로서 치과대학으로 시작한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을 기념해 의미 있는 기부를 하게 돼 기쁘고 많은 동문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기부의 소회를 밝혔다.

2020.02.18.(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윤세한, 건축학 79)

故 최막중 교수 장학기금 등 1억 원 출연

2020.03.06.(금)

가정혜 기부자 (故 김윤식 명예교수 배우자)

김윤식 학술기금 13억 원 출연

2020.04.14.(화)

최원갑(섬유공학 55일) 최신물산 前회장

든든한기부 · 만만한기부 1억1,000만 원 출연

2020.04.14.(화)

2020.04.14.(화)

김희천(생물교육 77일) 하우리 회장

하우리-서울사대 AI 교육연구기금 등 2억 원 출연

2020.04.28.(화)

오로라월드(노희열 회장, ASP 18기)

오로라월드주식회사 비교경제연구센터 기금 1억 원 출연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일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일		유희진 기계설계학과 78일		이용희 태광사 회장		운대섭 농공학과 49일	
삼성		관정이종환교육재단		SK		LG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화		포스코		웅진		KT	
신한금융		영원무역		현대자동차		롯데장학재단		부영	
우리금융		미래국제재단							

50억 원 이상 출연

조천식 정치학과 45일		현대		풍산		동진세미켐		태영	
IBK기업은행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악회		금호아시아나		두산		CJ	
대림		플라톤아카데미		스페코·삼익악기		한진		SPC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홍성대 수학과 57일	정영호 생물학과 47일 · 박양숙	이기영 前 의대 교수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일	김철·이옥자
손동준 전자공학과 59일	신창재 의학과 72일	변무관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일	원재연 경영학과 82일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일	김연혁 히로세코리아 감사	주중광·허지영	유태웅 토목공학과 50일	서정선 의학과 70일
전은기·김은희	박병준 섬유공학과 52일 · 홍정희	양두석 독어독문학과 69일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일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일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일	김명희 기악과 91일 김형찬의 모 · 신정희	김윤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가정혜	박상운	박원서의 상속인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윤전수·이삼락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일	백추현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일	정윤환 임학과 56일
곽노섭 수학과 49일	신승일 화학과 57일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일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일	백형익·유근순
강옥채	김정식 건축학과 54일	민선식 경제학과 78일	박정혜	양윤홍 전자공학과 63일
이필남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일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SK하이닉스	대우
메가스터디	카길애그리퓨리나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동원	동양	KB금융지주	송원김영환장학재단	대우조선해양
형애장학회	옹운장학회	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일진
미래에셋대우	풍림무악	한국가스공사	하나제약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현대중공업	녹십자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천재교육
생명보험협회	TOYOTA MOTOR CORP.	NHN	신풍제약	신라문화장학재단
현송교육문화재단	코스맥스	한국수력원자력	쌍용양회공업	이연제약
환인제약주식회사	서울장학재단	진양제약	일주학술문화재단	세진에프알에스
방일영문화재단	한국프로벨	DB김준기문화재단	대우인터내셔널	아산사회복지재단
농심	무한투자	크로바상사주식회사	단암장학재단	STX

*금액 순

기금 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NU Honor Club — 1억 원 이상 출연

강대희 (의과학과 81일)	김택수 (법학과 48일)	양운근 (전자공학과 79일)	장용국 (법학과 71일)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미래의동반자재단	일마스	하이에어코리아
강신자 (간호학과 59일)	김하서 (기념중·화학과 63일··약학과 64일)	양천식	장재혁 (역사과교과 80일)	Peter S. Kim (MIT 교수)	민국저출은행	일안엘바이오	한국PDA
고광선 (토목공학과 57일) · 양남주	김하자 (서양화과·故 하동술 교수의 부인)	엄병운 (외교학과 60일)	장정윤 (약학대학 65일)	Stanley Choy	민음사	애드미션	한국SMC
고광우 (행정학과 52일)	김학봉 (한영요업 회장)	엄영섭 (화학과 66일)	전광영 (전광영아트센터 대표)	김스թ레이비오텍	민호기 교수 유가족	엘트웰민초장재단	한국간연구재단
고운숙 (약학과 60일)	김현숙 (의과대학 60일)	연정은 (공예과 84일)	전광봉 (정책학과·동문의 부)	강신산업	비바페션	악학교육연수원 이수자일동	한국거래소
고운석 (물리학과 47일)	김현희 (간호학과 59일)	오경민 (경제학과 67일) · 오선희 (독어독문학과 63일)	전상훈 (외교학과 78일)	거령그룹	비아이피드	양지농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재광 (지구과학과·동문의 부)	김현주 (전자계산기공학과 78일)	박충한의 (백우자)	전용필 (경영대학 정인근의 모)	건길제약	바이온웨이	에리트웨이직	한국무역협회
고정택 (외교학과 62일)	김혜란 (기념화학과 교수)	오세경 (약학과 61일)	전의찬 (지구환경과·학부·故 전재규의 부)	건화엔지니어링	방송문화진흥회	엑스페제	한국문화진흥
고주 노웅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김희체 (생물교육과 75일)	오수익 (기계공학과 63일)	전해증 (동양사학과 47학)	경기도인재개발원	법대 39회 동문 일동	영립임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故 광명덕·변호사 유가족 (한자영·곽성현·곽성희)	김희천 (과학대학과 77일)	오승환 (의학과 56일)	전희선 (연세루이비昂호화 원장)	경남기업	법대 84회동 동기회	오펠	한국복합물류
곽성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나용인	오종호 · 오양호 (행정학과 69일 · 법과대학 80일)	정달현 (고고미술·시학과·故 정진임의 부)	경암교육문화재단	법대 85회학 동기회	오두기	한국산업은행
곽수근 (경영학과 73일)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일)	오윤덕 (행정학과 61일)	정병욱 · 이춘희	경영82홀 커밍데이	법대대교지도자과정 10기 일동	오두기한국화재단	한국세포주연구재단
구범진 (동양사학과 87일)	남윤자 (의류학과 교수)	오치군 (서양화과 76일)	(독어독문학과·故 정현수(03일)의 가족)	경제학과 · 무역학과 82일 동기회	법대대교지도자과정 8기 일동	오리엔트엔지	한국일률산업
구영록 교수 유가족	남정현 (건축학과 57일)	옥선화 (기장관리과 68일)	정영실 (인류학과 66일)	계수신산업	법무법인 광장	오리온전기	한국암웨이
구영배 (자원공학과 85일)	노명호 (토목공학과 61일)	옥치준 (기획과 61일)	정영현 (공업대학과·정순욱의 부)	고려여언	법무법인 베른	오성엘에스티	한국외국인학교
구의일 (경제학과 61일)	노태원 (물리학과 76일)	우두현 (상학과 61일)	정인식 (경제학과 58일)	골프존	법무법인 세종	오스템임플란트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인한 (국어교육과 50일)	류무종 (중어중문학과 53일)	우형규 (영어영문학과 33일)	정재민 (약학과 77일)	공영토건	법무법인 윤촌	우덕재단	한국전파기기국
권빈 (식품영양학과 00일)	마국철 (공업화학과 68일)	유동원 (공업화학과 94일) · 소영순 (영어교육과 교수)	정재선 (소비자자동화과 93일)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우아한형제들	한국증권금융	한국자본금지
권세임 (화학부·동문의 부)	마드린 (식품영양학과·단장 이승자)	유성숙 (고교미술·사회학과·故 김원웅 교수의 부인)	정재준 (前 경보전기 부회장)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법무법인 태평양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권숙길 (물리천문학부 54일)	마인경 (지리학과 56일)	유효선 (의류학과 70일)	정종곤	법무법인 화우	유니베라	한국티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
권영태 (약학과 55일)	문학진 (화학과 49일)	운계설 (상학과 64일)	정종수	관사장학회	유신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일)	문호수 (조소과 92급)	운덕우 (경제학과 58일) · 최덕자	정지석 (약학과 60일)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유티씨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권욱현 (전기공학과 62일)	문희성 · 박종식 (전기공학과 53일 · 가정교육과 54일)	운석금 (웅진그룹 회장)	정해문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 생물교육과 58일) · 김옥진 (생물교육과 58일)	광동제약	본솔김경한장학재단	한국이씨양도공파실서공증중	한국이씨양도공파실서공증중
권장태 (종교학과 62일)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일)	운석운 (수의학과 59일)	조경일 (약학대학 64일)	교보문고	부경양돈협동조합	유한킴벌리	한샘출판
김건식 (법학과 73일)	박대현 (불어불문학과 52일)	운세희 (전기공학과 57학) · 강애삼	조동성 (경영학과 67일)	구원장학단	비씨카드	운민창의투자재단	한수통상
김경국 (수의학과 86일)	박민식 · 박금우 (수의과대학 65일) · 체육교육과 63일)	운여순	조율현 (화학과 71일)	국가정책과정(ACAD) 충동창회 일동	국가정책과정(ACAD) 충동창회 일동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한월
김경호 (법학과 62일)	박병주 (여산스테이프 회장)	운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63일)	조병인	국방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은율	유익대학 피아노발전기금후원회	한제재장학재단
김경환 (외교학과 62일)	박봉근 (수의학과 76일)	운총식 · 최재영	조병직 (법학과 46일)	사법대학 국어교육과·동문회	사법대학 수학교육과·동문회	이수일 장학회	한국전연물신약
김경호 (기념화학과 87일)	박숙희 (지리학과 60일)	이건우 (기계공학과 74일)	조상익 (EMBA 14일)	국제사업	국제사업	이오테크닉스	해설문화재단
김광일 (경영학과 84일)	박승구 (경영학과 55일)	이경식 (불어불문학과 55일)	조석준 (행정학 57학)	국제증합물류	삼성꿈나루재단	이지비아오	해설장학회
김구 (정치학과 58일)	박영숙 (간호학과 65일)	이경태 (경제학과 66일)	조영식 (수의학과 80일)	김호아시아나문화재단	삼성에버랜드	이투스교육	해인증합건축사사무소
김금수 (간호학과 68일)	박영주 (전기공학과 71일)	이광희 (지리학과 59학)	조율현 (부산교통 대표)	김 · 장 법률사무소	삼송장학회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해태
김기봉 · 신경선 (기계공학과 63일 · 화학과 65일)	박용현 (기계행성학과 53일)	이교일 (기계공학과 60일) · 조종수 (건축대학 교수)	조종수 (건축대학 교수)	김영사	삼양사	인선문화재단	현대건설
김기태 (의학과 58일)	박용진 (불어불문학과 65일)	조증호 (수의학과 74일)	조현영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 생물교육과 43일)	김정문알로에	삼양제넥스	인촌기념회	현대전자산업
김난도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朴贊子 (가정관리과 82일) ·	이구철 (불리학과 55일)	조현영 (미학과 65일)	까사미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춘	현대차투자증권
김대우 (조선공학과 76일)	하상애 · 박임숙 · 박승윤 · 박노용	이금기 (약학과 55일)	조현준 (미학과 65일)	나선실업	삼일문화재단	인탑스	현대카드
김동길 (화학교육과 57일)	박종길 (전기공학과 93일)	이기원 (식품공학과 93일)	이기준 (식품공학과 58일)	남강장학회	삼일회계법인	인터넷파크	현대캐피탈
김동준 이유미 (故 최희원의 가족)	박종수 (수의학과 58일)	이기준 (기정교육과 61일)	차영선	남광토건	삼전승수공업	일동제약	현동장학회
김동훈 (화학과 48일) · 故 오정주 교수 가족	박종오 (영어영문학과 55일)	이내건 (경제학과 55일) · 이홍자 (약학과 63일)	채성기 (원자핵공학과 59학)	남영비비안	삼한박막진공	일동후디스	현우그린
김두철 (전자공학과 66일)	박종호 · 제약학과 67일)	이동수	채제한 (전기공학부 48일 故 체호석의 자)	네스코리아	삼호개발	일산장학회	홀플러스파란제단
김만국 (약학과 47일)	박준 (법학과 73일)	이만택 (의과대학 52일)	천문우 (약학과 61일)	노키아팀엠씨	삼화모터스	효성그룹	효성그룹
김병기 (기아나트센터 회백)	故 박진환 (경영학과 48일)	이명숙 (치과대학 62학)	최경준 (법학과 79일)	농어촌희망재단	삼영무역	휴믹스	휴믹스
김병종 (화학과 74학)	박태교 (화학부 79일)	이명현 (철학과 60일) · 김기현 (기악과 69학)	최규필 (제약학과 70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정책과·동창회	농우바이오	총한재단	총한재단
김상현 (시법학과 82일)	박태우 (건축학과 64일)	이문한 (수의학과 66학)	최덕수 (간호학과 69일)	상자이터너소날	전국경제인협회	AMP 63기 일동	AMP 63기 일동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일)	박태진 (독어독문학과 80일)	이병준 (경제학과 55일)	최민수 (기계공학과 76일)	다합넷	전국은행연합회	AMP 64기 일동	AMP 64기 일동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일)	박헌제 (동양사학과 69일)	이석 (기계공학과 80일)	최병선 (경제학부 교수)	대교	생활과학대 2012 · 2013 홈커밍 동문희망장학금	정공산업	AMP 65기 일동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일)	배옥자 (성심기정화학과의원 원장)	이성규 (사회과 65학)	최병오 (AFB,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기)	대동공업	생활과학대 2014 · 2015 홈커밍 동문희망장학금	정민	AMP 66기 일동
김성태 (영어영문학과 63일)	백종철 (농공학과 54일)	이성규 (정치학과 82학)	최스미 (간호학과 76일)	대림대학	생활과학대 2016 · 2017 홈커밍 동문희망장학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MP 67기 일동
김성애 (한국콜마(주) 연구위원)	법대 48회 졸업생	이순원 (간호학과 54일)	최수원 (기정교육과 50학)	대우재단	생활과학대학동창회	정수장학회	AMP 68기 일동
김성일 (일학과 76일)	변대규 (제어계측공학과 79일)	이순경 (기정관리학과 70일)	최원갑 (설유고분자공학과 55일)	대양 E&C	서울대학교 ROTC 동문회	정현재단	AMP 69기 일동
김수이 (경제학부 92일)	변성운 (경제학과 91일)	이신우 (물리학과 76일)	최운재 (축산학과 73일)	대영빌딩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십센터	제14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AMP 70기 일동
김수호 · 박경희 (금속공학과 70일 · 간호학과 71일)	변주선 (영어교육과 60일)	이영희 (기장원의 모)	최재일 (조소과·최민주의 부)	대우건설	서울대학교 대수리芋리와 12회 동창회	제너시스	AMP 71기 일동
김순균 (화학과 60일)	서분자 (간호학과 63일)	이예식 (약학과 46일)	최정숙 (화학공학과 49학)	대우기전공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스텍	AMP 72기 일동
김신원 (응용화학과 64일)	서용선 (미술대학 명예교수)	이용환 (농업교육과 63일)	최정운 (정치외교부 교수)	대우엔지니어링	서울대대학원 동문회	조비경농장학재단	AMP 73기 일동
김양곤 (IFP, 미레지오자인문학과정 2기)	서정원 (간호학과 66일)	이용원 (전기공학과 73일)	최정원 (경제학과 78학)	대우재단	서울미디언처파	종근당	AMP 74기 일동
김연탁 (경제학과 故 김태성 교수의 부)	서진 (법학과 56일)	이우영 (법과대학 94일)	최창원 (심리학과 83학)	대우테크	서울상대항상장학회	AMP 75기 일동	AMP 75기 일동
김연호 (화학공학과 71일)	설학인 (설유공학과 53일)	이원영 (AMP 62)	최희원 (3명)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선원	종로구립장학회	AMP 76기 일동	AMP 76기 일동
김영경 (기계공학과 52일) · 김천순	성난인 (제26대 총장)	이윤경 (간호학과 65학)	추현출 (전기공학과 55학)	대한사료	선동문화포럼	좋은책신사고	AMP 77기 일동
김영구 (치과학과 71일)	손경숙 (법학과 55학)	이윤경 (간호학과 65학)	동원화 (임학과·故 용한운의 부)	대한수의사회	성남립장학회	중앙유아연구소	AMP 78기 일동
김영석 (3 Plus Logistics 회장)	손원준 · 송은빈 (경영학과 96학 · 심리학과 99학)	이윤경 (기념학과 86학) · 이병서 (경영학과 66학)	하양구 (무역학과 72학)	대한유학	성현장학재단	지도자육성재단	AMP 79기 일동
김영수 (법학과 67일)	손주은 (서양사학과 81학)	이익찬 (경영학과 86학) · 이병서 (경영학과 66학)	한규범 (AMP 42학)	대한통운	지식노마드	AMP 80기 일동	AMP 80기 일동
김영수 (치과대학 명예교수)	송창조 (사회학과 71학)	이장우 (법과대학 94학)	한규환 (기계공학과 68학)	더불어유니피파운데이션	진생사이언스	Eyagi(이야기) CAFÉ	Eyagi(이야기) CAFÉ
김영숙 (기악과 48일)	송두영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24기)	이재승 (원자핵공학과 59학)	한기준 (의학과 52학)	더산디오종합건설	세이아이운영문화재단	GM	GM
김영숙 (승명월) · 김영월 (전기공학과 62학)	송명월 (전기공학과 62학)	이정섭	한동현 (기장원의 모)	더산스테이트	세아이청원특수강	Goldman Sachs	Goldman Sachs
김영업	송미순 (간호학과 70학)	이정섭 (종교학과 04학)	한동현 (사회학과 56학)	덕신에코빌	세아해양기술장학재단	KEILCO (KEPCO ILJAN CORPORATION)	KEILCO (KEPCO ILJAN CORPORATION)
김영용 (토목공학과 62학)	송상용 (화학과 55학)	이종우 (물리학과 62학)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돈일장학회	세진에디탈일에스	KRX상민행복재단	KRX상민행복재단
김용복 (농업교육과·동문의 부)	송상현 (법학과 59학)	이준용 (경제학과 56학)	한용기 (화학과 79학)	동방	셀리드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김용재 (외과대학 60학)	송인철 (SPARC 142)	이지형 (법과대학 85학)	한장희 · 김재희 (행정학과 61 · 법학과 61)	동방상호신용금고	천수재단	KTE	KTE
김용철 (치의학과 55학)	송희련 (법학과 59학)	이찬승 (수학교육과 69학)	허성도 (중어중문학과 68학)	동부대우전자	청합장학회	LG연암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김운종 (약학과 64학)</td							

가나다 수

2019.12.1.~
2020.2.29.

약정

출연

단위: 원

농어촌희망재단(정명재 이사장)	23,900,000	23,900,000	김나연(소비자아동학과 94일) 이인	10,000,000	7,500,000
지근역(식품영양학과 교수)	22,500,000	22,500,000	김해석(수의학과 74일)	10,000,000	5,000,000
최단국(종교중문학과 67일)	21,697,937	21,697,937	최단국(종교중문학과 67일)	10,000,000	5,000,000
권성훈(전기정보공학부 교수)	21,585,000	7,195,000	강상준(경정·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0,000,000	5,000,000
ACP·창의적리더를 위한 예술문화과정 제14기	20,894,000	20,894,000	김나현(환경·지정·정보공학부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김남도(소비자아동학부 교수)	20,450,012	20,450,012	농부나이오(이병각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목암과학재단(허은철 이사장)	20,000,000	20,000,000	뉴텍코리아(이혁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변성운(경제학과 91일)	20,000,000	20,000,000	이밀상(경제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증로구장학회(최현종 이사장)	20,000,000	20,000,000	이동기(경영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이중열(행복대학원 회장)	20,000,000	20,000,000	증로구장학회(최현종 이사장)	5,000,000	5,000,000
최진경(법학과 79일)	20,000,000	20,000,000	지비엘아이엔씨(방석석 대표)	5,000,000	5,000,000
미래에셋대우(최민수 석석부회장)	400,000,000	400,000,000	최진경(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0
송동준(농공학과 59일)	372,000,000	372,000,000	최후스홀딩스(변대규 대표이사)	10,000,000	10,000,000
미국철(공업교育과 68일)	250,000,000	250,000,000	허성기(농기경학과 79일)	5,000,000	5,000,000
오픈소사이어티재단(조지 소로스 이사장)	230,120,000	230,120,000	이봉진(무역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관악회(신재정 회장)	200,000,000	200,000,000	박진희(생물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미래와도전(이병철 대표이사)	200,000,000	200,000,000	이상승(경기정보공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이내건(경제학과 55일)·이충자(약학과 63일)	200,000,000	200,000,000	이승우(경기정보공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코스맥스(이경수 회장)	200,000,000	200,000,000	이수현(경기정보공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네이버(한성洙 대표이사)	165,000,000	165,000,000	한화디스커스(이승우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송원김경환재단(김해련 이사장)	150,000,000	150,000,000	한화생명보험(이승우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현대차·정공구 재단(권오규 이사장)	142,427,000	142,427,000	한화손해보험(강성수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SBS문화재단(윤세경 이사장)	140,000,000	140,000,000	한화솔루션(구연경, 김희철, 류동현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삼성복지재단(이서현 이사장)	133,625,000	133,625,000	한화에너지(정인선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김동훈(경기정보공학과 교수)·외·故오정주 교수·기숙	125,000,000	125,000,000	이정우(전기정보공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정해문(자연과학대학 박명수·생물교과·생물교과와 55일)	120,000,000	120,000,000	이병호(전기정보공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최원길(설유고분자재학과 55일)	110,000,000	110,000,000	한화자수증권(권희백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신라문화재단(박종현 이사장)	107,500,000	107,500,000	한국화재·제지재학재단(한기동 이사장)	5,000,000	5,000,000
포니정장학재단(김술수 이사장)	102,442,000	22,442,000	한국화재(이경학 교수)	5,000,000	5,000,000
김희천(과학교과 77일)	100,000,000	100,000,000	박진희(화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더난디오(한경학 설)(박병주 회장)	100,000,000	100,000,000	김승원(간호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현 대표이사)	100,000,000	100,000,000	한화생명(이경학 교수)	5,000,000	5,000,000
최현정(화학과 85일)	100,000,000	100,000,000	한국화재(박종현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포니정장학재단(김술수 이사장)	102,442,000	22,442,000	한국화재(박종현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김성일(산림과학과 교수)	100,000,000	100,000,000	한국화재(박종현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종합장학회(이주원 이사장)	100,000,000	100,000,000	한국화재(박종현 대표이사)	5,000,000	5,000,000
이경태(경제학과 66일)	94,000,000	94,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미래에셋 박원주재단(박현주 회장)	91,000,000	91,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전양재(최윤환 회장)	81,338,150	81,338,15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윤민창의복지재단(심민섭 이사장)	77,000,000	77,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일주학술문화재단(장종호 이사장)	75,034,000	75,034,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방일영문화재단(조만홍 이사장)	71,848,000	71,848,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에스와이 상경개발(김희천 회장)	70,000,000	7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이산화학·박종현재단(장종호 이사장)	59,893,000	59,893,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사립시스(아트 드 제우스 회장)	58,971,741	58,971,741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이기영(보건대학원장)	57,500,000	1,4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세진애드(박주나·서울대점)	38,266,660	57,366,66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이시형 대표이사)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오원배	56,200,000	56,2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롯데장학재단(허선경 이사장)	54,538,000	54,538,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2019.06.에전공 판매전 참가자 일동	51,131,035	51,131,035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관사장학회(이기혁 회장)	51,000,000	51,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AMP·최고경영자·제88기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스파크비나(박승범 대표이사)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인터넷파크(이기혁 회장)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김성애(김현우 회장)·연구원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오양호(법대학 80일)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옹용(행정학과 69일)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이형도(화학공학과 61일)	50,000,000	5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김태호(서양학과 72일)	45,000,000	45,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곽남신	44,200,000	44,2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영원무역(성기학 대표이사)	42,000,000	42,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연금재단(박용진 이사장)	41,062,000	41,062,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APP·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제25기	40,000,000	4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유한회사 피파원(김현우 대표)	40,000,000	4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김우경(체육교육과 교수)	40,000,000	40,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한화(경석 대표이사)	38,000,000	38,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DB김준기문화재단(이보근 이사장)	36,952,000	36,952,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단암장학재단(이봉서 이사장)	36,288,000	36,288,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윤승조장학문화재단(정병원 이사장)	35,923,000	35,923,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인현운수(박성훈 대표이사)	35,000,000	3,5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정수장학회(김삼천 이사장)	33,842,000	33,842,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카길애그리미니류문화재단(이보근 이사장)	33,000,000	33,000,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유한재단(이필상 이사장)	32,739,000	32,739,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다림수당학문화재단(자국현 이사장)	31,146,000	31,146,000	한국화재(김현우 회장)	5,000,000	5,000,000
차영선	30,220,000	30,0			

함께 만끽할 날을 기다립니다.
캠퍼스에 피어나는 계절을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을
서울대학교가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특지 장학금 후원자 예우

서울대학교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1억 원 이상 장학금을 쾌척해주신 후원자의 기부 스토리와 의미를 담아 장학기금을 명명해드립니다. 투명하고 독립된 기금 운영으로 기부자에게 정기 보고되며 영구히 운영됩니다. 또한 ‘특지 장학금’은 기부자 맞춤형 장학금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과 등을 지정하여 맞춤형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239개의 특지 장학기금이 설립되었으며 매년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약 26억 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초청



기부자와 장학생 개별 만찬



장학생 감사편지 전달



특지 장학금 출연 문의
출연팀
02-871-8004

장학금 수여식 문의
예우팀
02-871-1622, 1633

이메일 문의
snuf@snu.ac.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SNU HONOR CLUB
예우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자하연에 물고기가
많아서 오리를 좀 풀자 해서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이 오리들이 물고기를
잘 잡지를 못해요. 오히려 큰
잉어가 오리 꼬리를 때리면,
오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 캠퍼스관리과 이현욱 반장
스누새 편지 중

#서울대학교 #서울대 #SNU
#자하연오리 #빠이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더 만나보고 싶다면



SNU NOW
공식 홈페이지
snu.ac.kr



온라인 뉴스룸
[@snu.official](http://now.snu.ac.kr)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https://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유튜브
[youtube.com/
SeoulNationalUniversity](https://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



스누새 편지
bird.snu.ac.kr

지난 매거진은 서울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www.snu.ac.kr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매거진 <서울대사람들>은 우편 구독 외에 이메일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매거진 구독, 이번 호에 대한 의견, 살고 싶은 소식을 소통팀에게 알려주세요.
sotongteam@snu.ac.kr

사회와 소통하는 힘

시대적 과제 위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한발 앞서 고민해온 노력은

오늘날 서울대학교를 만든

힘입니다. 신실한 실천으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서울대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T. 02-880-5270

www.snu.ac.kr